

정상회담 앞둔 G2...주 메뉴는 북한 핵문제

오는 6~7일(미국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고강도 대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 G2(미중)가 짙 북 핵 프로세스의 새 판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루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조였다. 협상에 앞서 상대를 최대한 압박하는 사업가 시절 트럼프의 거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보면 이번 대 중국 압박이 단순한 '공갈'은 아님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대북 경제 제재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독자 제재대상으로 새로 추가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한 북한인 5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일했다.

더불어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지난달 7일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기업인 ZTE(중흥·中興통신)에 한화 1조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왕이(王毅) 중국외교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한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차적으로 검토를 끝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실리 저울질 시진핑

원칙적 안보리 이행 약속할 듯

핵실험 대비 초강경 조치 고심

넌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정책의 핵심이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의 전압을 점차 높이는 형국이다.

외교가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 때 '대화론'을 제기하며 무턱대고 맞서기 보다는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정

대북제재 압박 트럼프

북한과 거래 중국기업 제재 요구

끝판 협상보다 '거래' 피할 듯

도는 약속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 2월 중순,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심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수준을 넘어선 독자적인 대북 지렛대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승통을 조일 정도의 압박에 나설지에 쏠린다. 북한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

할 경우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향후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것은 트럼프의 첫 미중정상회담 전략과 연계된 문제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핵 해결을 위해 '하나의 중국' 인정, 남중국해 문제, 환율 조작국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 등과 같은 대(對) 중국 지렛대들을 사용하려 할지, 아니면 중국에게서 경제적으로 얻어 낼 바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핵 카드를 사용하려 할지에 따라 중국의 대응은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트럼프의 '목적'이 되느냐 '수단'이 되느냐에 따라 회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와의 내통 스캔들, '트럼프 케어' 법안 좌초 등으로 역대 대통령 임기초반 최저 지지율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짝꿍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기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북핵 문제에서 시 주석과 서로 낮은 불협화음의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경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내고, 북핵에서는 시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거래'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북핵 해결을 위한 '끝판 협상'을 벌이려 할지 '타협'을 택할지에는 북한이 준비 과정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관측되는 6차 핵실험을 정상회담 전에 단행할 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76수 문제의 부인 독고황후

독고황후(獨孤皇后, 543~602)는 수 문제 양견의 정식 부인으로 문제가 황제가 되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크게 내조한 인물이다.

문헌황후 독고씨는 서위의 선비족 대사마 독고신의 딸이다. 이름은 독고가라(獨孤伽羅)다. 그녀는 14세 되던 해 수국공 양충의 아들 양견과 혼례를 치루었다. 그녀는 자신 이외의 여자로부터는 자식을 보지 않겠다는 결혼 조건을 내걸었고 양견은 이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양견은 5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모두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다. 양용, 양광, 양준, 양수, 양양이 그들이다. 문제는 "오자(五子), 어머니가 같다. 가위 천형제로구나"라며 이를 크게 자랑스러워했다.

용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정치인 원씨 대신 출신인 윤씨를 보다 가까이 했다. 후첩박처(厚妾薄妻)의 과오를 그냥 넘어갈 독고황후가 아니었다. 결국 장남을 폐하고 차남인 양광을 새로운 후계자로 선정했다.

후일 수양제가 되는 양광으로의 황태자 변경이 수양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나머지 아들들도 대부분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지나친 결백성이 황실 집안뿐 아니라 왕조의 운명을 그르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황후의 질투심 때문에 후궁을 셋 이상 두지 못했다. 중신 위지형의 딸 위지씨를 가까이 하자 그녀의 목을 베어 잘린 목을 상자에 담아 남편에게 보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문제는 궁 바깥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찾아온 재상 고경에게 "난 신분이 천자

'내조의 여왕'에서 '질투의 여왕'으로

그녀의 여식이 북주 선제의 황후로 들어가 황실의 외척이 되었다. 선제는 스스로 천원 황제라 칭하고 기행을 일삼으며 중신들을 이유없이 죽였다. 결국 580년 22세에 요절하고 정제가 뒤를 이었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581년 황실과 조정의 추대를 받아 양견이 황제가 되어 수나라를 창시했다. 중선지의 심판사라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이 외손자 정제를 퇴위시키고 정권을 잡으려 하자 밀서를 보내 "당신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니 이제는 말에서 내릴 수 없다"며 남편의 결단을 촉구했다. 소위 기호지세 부득하(騎虎之勢 不得下)의 고사다.

589년 남조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재통일하는데 그녀는 좋은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문제와 독고황후를 이성(二星)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 이외의 여성에 대해 남다른 질투심을 품고 있고 윤리적 결백성이 심했다는 점이다.

남편인 문제가 다른 후궁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중신들의 축첩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신하들마저 정처(正妻)에 다른 여자를 곁에 두는 꼴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황족이나 중신 가운데 첩에게서 자식을 본 사람은 처벌되거나 좌천되었다. 황태자인 장남 양

이면서도 자유가 없구나"라고 한탄했다. 고경이 "일개 후궁의 일 때문에 천하의 정사를 폐할 수는 없다"고 설득해 마지못해 환궁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고경은 그녀의 미움을 사 사약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경이 사약을 받게 된 배경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상차하자 황후는 후처를 권했다. 그러자 고경은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사양했다. 그런데 후일 그가 첩에게서 자식을 얻자 황후는 크게 배신감을 느껴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황후로서는 "유순하고 효성스러웠으며 부녀의 덕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현명한 조강지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번은 돌궐족이 명주 한 상자를 8백만전으로 구입하도록 요청했는데 그녀는 이를 공이 있는 장수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황후의 일족이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했다. 602년 문제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혼자가 된 문제는 후궁인 선화부인에게 애정을 다 쏟았다. 황후를 존중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경원시했다고 볼 수 있다. 604년 문제 사후 수양제가 즉위하니 왕조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청나라 사가 조익은 "예로부터, 궁궐의 시샘은 수의 독고황후보다 더한 자는 없었다"고 그녀를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소녀상 반발' 주한 일본대사 복귀

日 정부 85일 만에 귀임 조치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지난 1월 9일 일시 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嶽安政·사진) 주한 일본대사를 4일 귀임시키기로 했다.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일 오후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선 정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준수를 직접 요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부산 소녀



상 및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교과서와 교과서 내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등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의 변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은 일시 귀국 85일만이다. 이는 양국간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시귀국했던 대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2012년 8월 일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가 12일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앞서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항의해 우리 정부가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일시귀국시켰다가 21일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국인 2000명 하와이 관광 비자 거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려던 중국의 대규모 기업 포상관광단이 무더기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내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화장품업체 뉴스킨의 중국 판매자 6000명 중 2000명 이상이 비자 문제로 하와이 땅을 밟지 못했다.

통상 하와이를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비율은 10~15% 정도지만 이번 뉴스킨 포상관광단은 이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동안 하와이를 비롯한 여러 미국 지자체는 미국관광협회와 협력해 비자 발급 시간 단축, 항공기 직항편 도입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反) 이민 정책 기조의 불용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중국인들에게 하와이 관광을 홍보하는 기구 '하와이 투어리즘 차이나'의 리 호장은 "일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인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아시아를 겨냥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뉴스킨 포상관광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의 하와이 단체관광 수요가 다소 줄었으며, 여행 예약을 1년 뒤로 미루는 등 다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영향이 주고 있다고 호장은 전했다.

그는 "모두가 (상항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킨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포상 대상 판매자 2000여 명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보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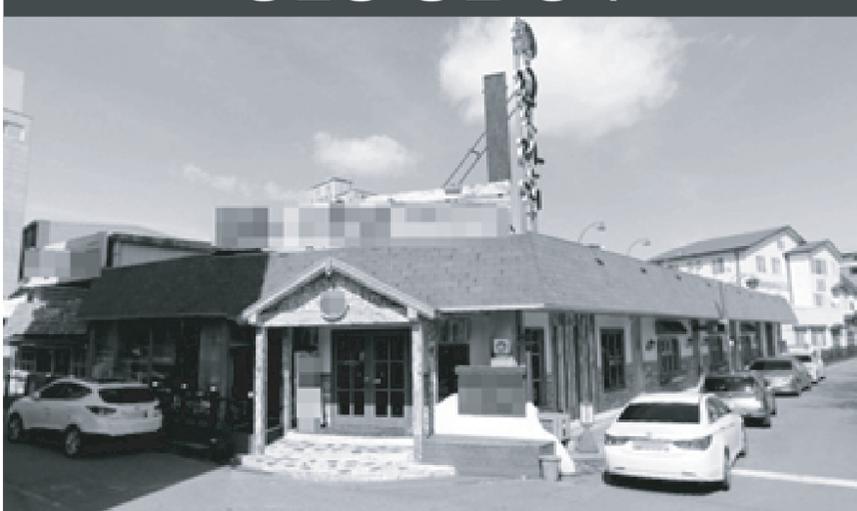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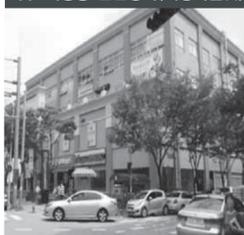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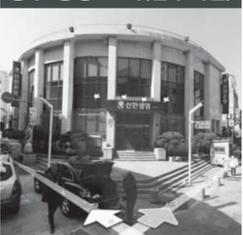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평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평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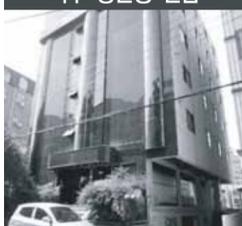
대지 400평 최저가 3,304,000,000
건물 329평 감평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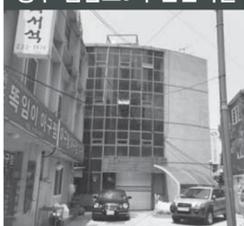
대지 1073평 최저가 540,000,000
건물 336평 감평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최저가 788,000,000
건물 340평 감평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평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액성 중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평가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